

KEA FOCUS

전기협회, 창립 50주년! 새로운 도약 위한 기반 다진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9일 부서별 신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새해 업무에 돌입했다. 올해는 전기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로 지난해 마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한 틀을 다지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협회는 국내 전기산업이 직면한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있어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과 지원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기술처

기술처는 올해 전기표준품셈의 신뢰성 및 기능인력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기본업무의 내실화를 꾀하고, 신규 사업을 다변화하는데도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술처는 올해 송·변·배전 분야 품셈 중 최근 5년 이전에 제·개정되지 않은 항목을 전면 제·개정함으로써 기술발전 및 현장 거건 변화 등을 신속히 반영키로 했다. 표준품셈 업무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표준품셈 관리발전방안 세미나'(4월)를 개최, 정부, 발주기관, 시공사,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함께 합리적인 전기공사 예정가격 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품셈·실적공사비 통합운영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남북 전력기자재 표준화 추진 연구, 해외 배전기자재 기술개발 동향분석 연구, 국내 도서지역의 전력품질 측정 및 분석연구 등 신규 조사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능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능평가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우선 현행 1명이 평가하던 것을 개선해 평가위원 2명이 동시에 평가하는 평가복수평가제를 도입,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평가지표도 개선 보완하고, 한전 인재개발원과도 협력을 통해 문제은행 시험문제도 추가 및 보완키로 했다.

기능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과정의 경우 올해 지중배전향상 교육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무정전 향상교육 등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대외협력처

대외협력처는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를 통해 만족도 증대에 나서는 한편, 전략적 대외홍보 및 능동적 언론홍보를 통해 협회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회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5월)를 정례화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 서비스 아이템을 개발기로 했다. 회원명부도 제작해 배포(12월)할 예정이다. 협회 홈페이지도 상반기 중으로 개편해 웹접근성을 강화하고, 발행도서 구입, 회비납부, 교육비 결제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다.

홍보 분야의 경우 올해 제50회 전기의 날 기념식, 협회 비전선포식 등 주요 행사들이 많은 만큼 체계적인 언론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SNS 등을 적극 활용해 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교류활동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기술기준처

기술기준처는 협회의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유지관리사업(5단계) ▲실증단지 1단계(저압) 조기구축 및 2단계(고압) 사업 추진 ▲국제표준 교육 전문기관 추진 ▲공유가치창출(CSV)을 위한 연구조합 설립 등 4대 중점 과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기준처는 한국전기규정(KEC) 제정(안)을 마련하고 적용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이 과정에서 기술기준처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KEC 제정에 따른 현행기준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남북 전기설비기술기준 연구회(가칭)'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형 전기설비 통합실증단지 구축과 관련, 기술기준처는 1단계(저압 분야) 사업을 당초 내년 8월에서 올해 12월로 8개월 단축해 조기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단계(고압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KEC와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교육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기술기준처는 국제표준 중심의 전기분야 Code & Standard 전문교육 시스템 개발,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육과정 연계 및 인정 시스템 운영, 산·학 연계 국제표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기산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연구 조합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전기설비 전기저장장치 시설규정 제정, 발전설비 연료전지·가스화로 설비 등 기술기준 개선, 발전용 풍력설비 전기시스템 조건 평가 판단기준 제정 등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대한 개선연구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전력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10월에 '한·중 전력기술컨퍼런스'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4월 개최되는 전기설비기술기준워크숍에서는 K-Water,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조명연구원·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과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외 교류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KEPIC처

KEPIC처는 ▲KEPIC 6단계 사업 적기 완료 ▲KEPIC 7단계 사업(2016~2020년)의 차질 없는 준비 ▲KEPIC 내실화를 위한 전문성 향상 ▲전기계측 분야 단일표준화 기반 마련 ▲국내외 KEPIC 수익사업 영역 확대 등을 올해 주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기계(공기압 및 유압구동밸브 가동전 및 주기적 성능시험 등 7종), 전기계측(금속 폐쇄형 차단 스위치기어 등 23종), 구조(면진설계 등 2종), 원자력(방사성폐기물 운영시행 지침 등 3종), 화재방호(분말소화기 설비표준 등 4종) 등 총 39종, 2,947쪽에 대한 신규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제동향에 부합하는 원자력 품질보증체제 도입연구, SMART 원자로 실용화 표준 개발연구, 중수로 원전가동중검사 기술표준 개발연구 등 KEPIC 개선 과제 연구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원전의 KEPIC 적용에 따른 기술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특히 신규 발전소 건설사(민자발전 포함)를 대상으로 KEPIC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화력발전소에 대한 KEPIC 적용 확대에도 주력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운영 원전의 화재 분야에 대한 KEPIC의 적용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기로 했다.

전력설비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도 지속된다. KEPIC처는 KEPIC Guide(국/영문) 제작 및 산업계 제공, UAE 원전건설 비파괴 검사원 자격인정 등 해외원전 건설 및 KEPIC 인증업체에 대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기로 했다. 또한, 원전 수출관련 표준화 수익 사업모델을 구축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KEPIC 교육은 26개 과정에 대해 41회 실시될 예정이다. KEPIC 인증과 관련, KEPIC처는 자격인증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심사비 산정규정도 개정기로 했다.

KEPIC e-Book 시스템 서비스 시행, 기술 분야별 위원회 전용 그룹웨어 서비스 지속 운영, KEPIC 온라인 서비스 채널 확대 등 웹 기반 운영체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원전 부품·설비 통합 인·검증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올해 본격화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원전 부품·설비 인·검증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검증체계 개선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전력기술교육원

전력기술교육원은 올해 보다 향상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노후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우수 강사요원을 확보하는 등 교육서비스의 질적 우위를 점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교육원은 부진과정에 대한 불합격 요인 분석 및 대책수립, 부진 교육생에 대한 집중 개인지도 등 충실한 교육을 통해 합격률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협회의 공익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교육원은 영등포공고 전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학 협력 위탁교육(지중배전 교육)을 전년도에 이어 시행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전담교사와 학생들의 희망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지원자격 연령도 지난해 18세에서 17세로 완화해 자격취득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무재해 달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실습강사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교육생 안전과 관련된 활선차량, 안전장구,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기에 점검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원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보급 추진의 적기에 대응을 위해 NCS 기반 훈련기준을 활용한 훈련과정을 편성하는 등 훈련기준 변화에도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전전기원(2급) 기능, 변압기 필수기술, 개폐장치 필수기술 등 가능향상 교육과정과 변압기 필수(일반)기능, 개폐장치 필수(일반)기능 등 보강교육과정을 신설해 시행할 계획이다.

■ 경영지원처

경영지원처는 올해 비전을 '변화·혁신을 통한 경영시스템 선진화'로 설정하고 올해부터 본격화될 협회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경영지원처는 이사회/정기총회(2월), 전기의 날 기념식(4월), 협회 비전 선포식(4월) 등 각종 회의와 주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올 6월 신규 전기회관으로의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시행기로 했다.

경영효율성 제고, 인사제도 선진화, 전략형 중심의 조직문화 실현 등 지난해 마련된 협회 중장기 발전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매·계약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괄구매 시스템과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결재 시스템도 도입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계에 매달 배포되고 있는 '전기저널'과 관련해서는 편집체계를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협회 50년사'도 발간할 예정이다. 전기계에 대한 양질의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계업무를 적극 추진키로 했으며, 회원(사), 내부직원, 자매결연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기전력인프라를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시행기로 했다. 한편 올해 장학사업의 경우에는 총 2명에 대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7,9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